

민선7기 공약사업 밑그림 나왔다

임실, 4개분야 75개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완료 군민과의 약속 '최우선'

임실군이 민선7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의 시대를 열어가길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행정력을 극대화해 나간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생활밀착형 민생정책 중심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공약은 희망농업과 500만 관광객의 기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군민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 골고루 잘살고 더 확실한 임실 발전을 위해 4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첫째, 함께하는 희망농업분야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 포장재 일괄제작 지원과 산지유동센터 출하능률 최우선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지원, 청년농 농촌회유 프로젝트 등 농업환경 개선 및 미래농업

발전과제를 풀어 나가기로 했다.

둘째, 활력있는 지역경제분야는 행복한 임실발전을 위한 지역의 미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뒀다.

육정호·성수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개발, 오수의경관광지 중심 반려동물 연관산업 거점 육성과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셋째,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분야는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 등 군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주력한다.

70세 이상 노인, 다문화,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임실사랑상품권지급,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TV유선방송비 지원, 전 군민을 안전보험 가입,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 65세 이상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 아동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약도 함께 추진한다.

넷째, 품격있는 교육·문화분야로서, 민선6기 성공적인 교육정책으로 손꼽히는 봉황인재학당은 민선7기에도 우

수인재와 청장년층 가구 유입에 크게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에는 애향장학금 확대지원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초중고학생수학여행 경비를 지원, 임실공공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북부권생활체육공원과 임실다목적체육관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민선6기 공약으로 군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산물벼 건조비 지원, 한우농가 인공수정용 1등급 최우수정액 지원,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 생산작업단,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정책도 이어진다.

심 민 군수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출범 한 달을 맞아 75개의 공약사항을 확정, 세부실행 계획 추진에 공직자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며 "전 직원이 공약사항을 공유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주민 체감치안 향상위해 노력”

제74대 남원경찰서장에 최홍범 총경 취임



남원경찰서 (서장 최홍범·사진)는 6일 4층 만 인홀에서 각과·계장 및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대 서장으로 최홍범 총경이 직원들의 환영 속에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취임사에서 최 서장은 “범죄나 기타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치안을 바탕으로 하고, 특히,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한편, 각종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에 힘써 지역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치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와 경찰관으로서의 소명에 뜨거운 열정으로, 진정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원경찰로 거듭나, 남원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서장은 장수 출신으로 전북지방청 기획예산계장, 경무계장,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무더위 속 실내수영장 인기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자 순창군 실내수영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폭염과 더불어 여름방학이 맞물려 초등학교 특강은 물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영강습이 이루어져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우선,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여름방학 수영교실 특강은 40명 모집에 80여명이 신청을 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명 정도 증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수영교실 특강은 생존수영에서부터 물놀이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전문수영강사 2명이 매주 월·수·금 주3회 실시하고 있다. 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도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인원이 몰리면서 안전요원 2명이 추가로 배치될 정도다.

이에 따라 수영장측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자동으로 물을 수시로 순환 및 교환시키고 있으며 여과기 가동여부 및 소독약품 투입장치 점검 등으로 이용객 안전 및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폭염에 가뭄까지... 타들어가는 농심 달래기

순창군 폭염·가뭄 극복 잇따른 고강도 처방 눈길 5억9000만원 예비비 투입



순창군이 장기화된 폭염·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잇따른 고강도 처방을 내보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순창군이 장기화된 폭염·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잇따른 고강도 처방을 내보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양수기 등 농기계수리 가동수리반과 작별별 가뭄극복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어 5억 9천여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 가뭄 극복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거쳐 9일부터 사용될 계획이다.

군은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장마가 장기화 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긴급히 사용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에 예비비가 사용되는 사업은 친환경 비 재배단지 중형관정 지원 20공에 8천 400만원, 원예특작 분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에 1억 5천만원, 암반관정, 양수장 보수, 저수지 수리

등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에 4억원 등이다. 군은 이번 예비비 사업이 주로 농작물에 대한 원활한 관수 작업에 사용될 기반을 만드는 사업으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 가뭄극복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군 농촌개발과에서는 하천과 계곡 등 양수작업이 가능한 가뭄지역에 읍면 양수기 31대, 송수호스 3.9km 설치 했으며 21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고 하고 있다. 특히 가뭄피해가 극심한 지역 순창읍, 쌍치, 금과,팔덕면 지역에 중장비(굴삭기)를 동원해 44개소의 하상굴착을 진행하고 동계면 수정마을 산비탈 천수담 지역에는 돌방을 굴착해 30농가 13ha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요양보호사, 읍면 생활관리사 등을 활용해 폭염 위기가구에 대한 현황조사에 나서는 등 폭염 등 재난에 입체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71대 임실경찰서장에 박주현 총경 취임



“우리 경찰 가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앞장서며 임실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제71대 임실경찰서장으로 박주현(사진) 총경이 6일 취임했다.

취임 행사는 경우회장 등 협력단체장 5명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시간을 가진 후, 임실 호국원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박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찰 개혁의 주된 지표인 ‘민주·민생·인권경찰’과 연계하여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과 경찰 가족 간 정, 경청, 배려, 약간의 손해 보는 삶 등 군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서장은 임실서의 나아갈 방향으로 △임실 가족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내실화 △아르바이트 등 교통약자 중심 안전대책 추진 등을 제시하며 군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임실경찰이 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폐건전지 분리배출 활성화 주력

남원시가 ‘그냥 버리면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소중한 금속’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원폐건전지·폐형광등의 분리배출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폐건전지-쓰레기봉투 교환사업’을 연중 실시해 시민들이 폐건전지를 모아 환경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240g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매로 교환해 주고 있으며, 7월말 현재 폐건지 2,850kg를 쓰레기봉투 1만 1,875매로 교환해 주었다.

폐건전지는 분리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해 매립하면 수은, 망간 등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토양을 오염시키지만, 분리배출 된 폐건전지는 재활용 처리과정을 거쳐 철, 아연, 니켈 등 금속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류장기 환경과장은 “폐건전지와 형광등 분리배출은 시민건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